



미 증시, CPI 컨센 상회에도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11 일(목) 미국 증시는 12 월 CPI 컨센 상회로 인해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확대됐으나, 이후 인플레이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는 인식, 이번 물가 지표를 둘러싼 연준위원들의 엇갈린 발언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(다우 +0.04%, S&P500 -0.07%, 나스닥 +0.00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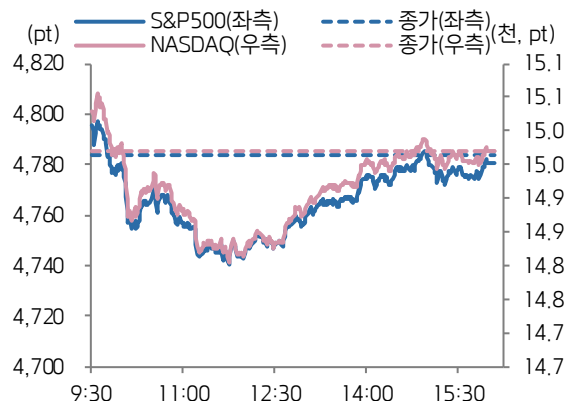
미국의 12 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3.4%(YoY)로 전월(3.1%) 및 컨센(3.2%)를 상회. 근원 소비자 물가는 3.9%(YoY)로 전월(4.0%)에 비해 하락했으나, 컨센(3.8%)은 상회. 헤드라인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연료(11 월 -24.8% → 12 월 -14.7%), 가솔린(-8.9% → -1.9%) 등 에너지(-5.4% → -2.0%) 품목 등의 하락폭은 축소. 반면,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주거비(6.5% → 6.2%), 의료비(-6.3% → 5.5%) 품목 등의 상승폭도 축소.

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.2 만건으로 전주(20.3 만건) 및 컨센(21.0 만건)을 모두 하회.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83.4 만건으로 전주(186.8 만건) 및 컨센(187.1 만건)으로 집계되는 등 아직까지 고용시장의 본격적인 훼손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.

한국은행은 1 월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.5%로 동결(시장 컨센서스와 일치). 물가상승률이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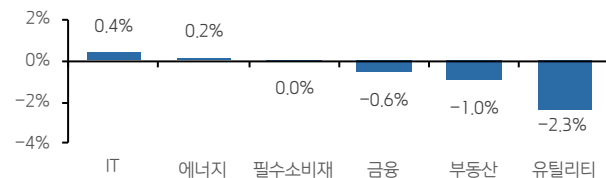
또 "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"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긴축 종료를 시사했지만,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으며, 적어도 6 개월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.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설명. 또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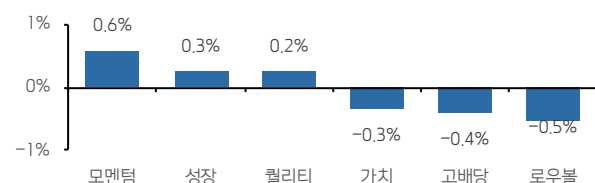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540.27	-0.07%	USD/KRW	1,312.86	-0.57%
코스피 200	340.28	-0.11%	달러 지수	102.33	-0.04%
코스닥	882.53	+0.81%	EUR/USD	1.10	+0.03%
코스닥 150	1,396.86	+1.12%	USD/CNH	7.18	+0%
S&P500	4,780.24	-0.07%	USD/JPY	145.30	+0.01%
NASDAQ	14,970.18	+0%	채권시장		
다우	37,711.02	+0.04%	국고채 3년	3.222	-4.5bp
VIX	12.44	-1.97%	국고채 10년	3.317	-3bp
러셀 2000	1,955.46	-0.75%	미국 국채 2년	4.245	-11.3bp
필라. 반도체	4,067.90	+0.47%	미국 국채 10년	3.966	-6.2bp
다우 운송	15,534.90	-0.44%	미국 국채 30년	4.173	-3.2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442.28	-0.6%	WTI	72.02	+0.91%
MSCI 전세계 지수	722.83	+0.37%	브렌트유	78.32	+1.98%
MSCI DM 지수	3,161.50	+0.46%	금	2019.2	-0.42%
MSCI EM 지수	988.97	-0.41%	은	22.71	-1.57%
MSCI 한국 ETF	61.53	+0.18%	구리	377.65	-0.12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18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41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42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12.2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7 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및 기술적 매수세 유입 여부 2. 미 12 월 CPI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한 미 증시 영향 3.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 지속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2 월 CPI YOY 3.4%(예상 3.2%, 전월 3.1%), 근원 CPI 3.9%(예상 3.8%, 전월 4.0%) 기록하며 모두 예상치를 상회,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치 하회하며 물가 하락 속도 둔화 및 견고한 고용시장 재확인하는 결과. 그러나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.

헤드라인에서는 MOM 휘발유 전월 -6.0% → 0.2%로 상승전환, 전기료 1.4% → 1.3% 기록하며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를 상쇄, 전체 에너지 부문 물가 전월 -2.3% → 0.4%로 증가하는 결과. 코어에서는 주거비 0.4% → 0.5%로 상승폭 확대하며 전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. 최근 미국 내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, 기존에 체결된 임차계약도 지수에 반영되는 산정 방식 때문에 신규 임대료 변화를 반영하는 데 시차가 존재.

컨센서스 0.2%p 상회했음에도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한 이유는 1) 서비스물가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물가는 YOY 11 월 3.93% → 3.91% 로 하락, 2) 클리블랜드 연은 추정치 상 1 월 CPI 는 재차 둔화될 전망, 3) 3 월 금리인하 기대감 되돌림 선반영 인식 때문.

이후 이어진 연준위원 발언 역시 이번 CPI 결과는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다고 평가하며 증시 안정에 기여. Fed Watch 상으로 3 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전일 60%대에서 70%대로 소폭 상승하며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는 훼손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, 10 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등 이번 CPI 결과는 무난하게 소화한 뒤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업 실적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.

11 일(목) 국내증시는 CPI 경계심리, 삼성전자 블록딜이 지수 상단을 제한한 가운데 증권, 인터넷게임 등 개별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장 후반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영향으로 현선물 매도세 확대되며 혼조세 마감 (KOSPI -0.07%, KOSDAQ +0.8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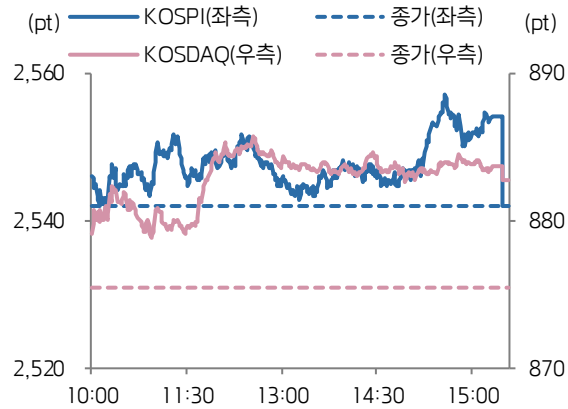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무난한 CPI 결과로 인한 우호적 매크로 환경 속 7 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, 개별이슈에 종목 장세 이어지며 코스피 지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.

국내는 코스피가 7 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번주 -1.47% 기록하며 부진했지만, 코스닥은 0.48% 기록하며 120 주선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등 선방. 대형주가 부진하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, 이차전지의 부진. 삼성전자 실적 쇼크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 Q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 섹터 대비 상대강도가 약한 것이며, 이차전지는 에코프로머티 MSCI 편입 기대 수급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.

주도주의 부재로 코스닥 내 중소형주 순환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, 연말부터 시작된 상승분은 실적개선 보다는 증시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대부분. 우려 요인은 신용잔고의 빠른 증가. 증시 전체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1 월 초 29%대에서 34%대까지 상승, 코스닥 시총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12 월 1.9%대에서 2%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중소형주 추격매수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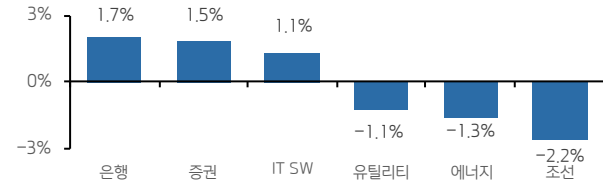
한편, 1 월 1~10 일 수출은 YOY 11.2% 증가하며 긍정적. 대중국 수출 YOY 10.1%로 2022 년 5 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, 반도체 수출 YOY 25.6%로 두 달 연속 증가. 그 외 이차전지, 철강, 화학은 부진했으나 조선기자재, 변압기 수출 견조하므로 매크로 변동성 확대 시 안정적인 실적의 수출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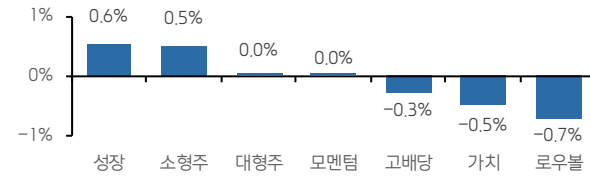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